

230.005  
7364  
V. 22

# 고신신학 22

고문 Advisers | 김병원 박사, 전호진 박사, 황창기 박사

편집인 General Editor | 신득일 교수 Prof. Dr. Deuk-il Shin

## 위원 Members of Committee

강용원 교수(고신대, 교회교육 및 봉사신학, 은퇴)  
김성수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은퇴)  
김운태 교수(백석대, 교의학)  
김진섭 교수(백석대, 구약학)  
배아론 교수(고신대, 선교학)  
배정훈 교수(고신대, 교회사)  
송영복 교수(고신대, 신약학)  
신경규 교수(고신대, 선교학)  
신득일 교수(고신대, 구약학)  
신원하 교수(고신대, 기독교윤리학)  
심상법 교수(충신대, 신약학, 은퇴)  
우명훈 교수(고신대, 교의학)  
이병수 교수(고신대, 선교학)  
이복수 교수(고신대, 선교학, 은퇴)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 은퇴)  
이신열 교수(고신대, 교의학)  
이정기 교수(고신대, 태권도선교)  
이학재 교수(대한신대원, 구약학)  
이현철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이환봉 교수(고신대, 교의학, 은퇴)  
임영효 교수(고신대, 봉사신학 및 선교학, 은퇴)  
임창호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장세훈 교수(국제신대원, 구약학)  
전광식 교수(고신대, 현대신학 및 기독교철학)  
조성국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철학)  
주기철 교수(고신대, 신약학)  
최갑종 교수(백석대, 신약학, 은퇴)  
최승락 교수(고신대, 신약학)  
최윤갑 교수(고신대, 구약학)  
한수환 교수(광신대, 기독교윤리학)



고신대학교



EM00194919

연락처 | 606-701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T e l | 051-990-2348, 990-2276

F a x | 051-911-2525

E-Mail | dishin@koshin.ac.kr

◆ 서문 | 신득일 편집인 ..... 001

특집 1

- 구약과 전염병 ..... 003  
신득일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특집 2

- 나라 사랑:『21세기 찬송가』의 교독문 99-103을 중심으로 ..... 023  
송영목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 정미경 \_ 고신대 강사

특집 3

- 사도행전 2:42의 ‘떡을 땡’ ( $\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이 주는 교훈 ..... 061  
주기철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특집 4

- 전쟁과 툴립(TULIP): 도르트 신조의 인간론 ..... 091  
우병훈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특집 5

- 국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 ..... 137  
이신열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고신신학회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개혁주의적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형성된 모임으로서  
신학전문학술지 「고신신학」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신학연구에 관한 사역을 담당하는 신학자 모임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활동에 뜻을 같이 하여 학술연구로 참여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영도구 외치로 194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Tel: 051-990-2348, 990-2276 Fax: 051-911-2525

구독료는

한 권당 10,000원이며, 구독료와 뜻있는 교회 및 독자기들은 아래 구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600015-0334180-12 ● 고신신학회  
국민은행 ● 105-01-0966-273 ● 고신신학회

본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 학술지 책임자의 서면인가 없이 복사(프린트, 제록스, 미스터, 사진 및 기타)  
할 수 없습니다.

\* 이 「고신신학」은 고신대학교의 후원에 의해 출간되었음

# 차 례

고신신학 제22호

## 서 문

### 특집 6

- 1~3세기의 박해: 역사적 사실과 교훈 ..... 187  
배정훈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 구약학

- 구약과 생태계: 오경을 중심으로 ..... 219  
신득일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 선교학

- 이슬람, 기독교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 245  
이병수 \_ 고신대 선교학

### 설교학

-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신학적 배경 ..... 289  
필립 입슨 \_ Principal of London Theological Seminary  
번역: 최윤갑 \_ 고신대 신학과 교수

올해는 한국동란(625)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학은 늘 역사와 현실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에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적인 전쟁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 19)로 인하여서 나라 안팎이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는 물론 학교와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 임무라고 판단하여 이번 특집에 ‘전염병’이라는 주제를 하나 더 붙였다.

금번 특집을 통하여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성경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나머지 일반논문도 이 시대에 적실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산업화의 흐름 속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상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기독교적 시작과 태도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린 논문은 지난해 가을에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의 초청으로 강의한 필립 입슨 교수의 글이다. 지난 세기에 복음주의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

는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시도한 것이다. 로이드 존스가 설립한 런던신학교에서 그의 신임을 받아서 36년간 봉직한 입승 교수의 글은 한국의 설교자가 그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귀한 원고를 써서 투고해주신 교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재정을 극도로 긴축하는 대학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올해도 ‘고신신학’을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안민 총장님과 고신대학교에 감사를 표한다. 이번 ‘고신신학’ 22호도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편집인 신득일

## 특집 1

### 구약과 전염병

### The Plague in the Old Testament

신득일

고신대(신학과 교수)



1. 서언 | 7
2. 본론 | 7
  - 2.1. 용어와 용법 | 7
  - 2.2. 전염병의 종류 | 9
  - 2.3. 전염병의 원인 | 11
    - 2.3.1.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 | 11
    - 2.3.2. 대적에 대한 심판 | 13
    - 2.3.3. 불분명한 재앙 | 14
  - 2.4. 전염병의 성격 | 15
    - 2.4.1. 경고 | 15
    - 2.4.2. 징계 | 16
  - 2.5. 회복 | 18
3. 결론 | 21

요약

## 구약과 전염병

구약의 전염병은 주로 언약적 저주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나 징계로 나타난다. 그것은 옛 언약 시대에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타나는 이 전염병의 위협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 *The Plague in the Old Testament*

주요어

전염병, 재앙, 언약적 심판, 징계, 회개

**Abstract****The Plague in the Old Testament**

Prof. Dr. Deuk-il Shin

The plague in the Old Testament was mainly used as a covenant curse and as a tool to judge his people. It is characterized by a warning or discipline against the people of Israel. It was God's way of dealing with his people in the old covenant times.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plague that appeared in this era was God's judgment. However, Christians should look back to themselves facing the threat of this plague that appears under God's sovereignty, and live boldly and ask God's will, relying on Jesus Christ who has borne our sickness.

**Keywords** | plague, disaster, covenant judgement, discipline, repentance

**1. 서언**

한국은 물론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 중 하나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다(레 26:25; 신 28:21).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키면 우리를 회복시켜주실 것이라는 약속(대하 7:13b-14)을 상기시키며 전체 교회에 대한 성도의 회개를 호소하면서 기도의 지침을 전하는 지역도 있다. 물론 원래 죄 많은 인간이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정상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구약의 신명기적 저주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이 사회적 현상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구약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옛 언약의 율법과 약속이 새 언약 시대의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피는 것이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

**2. 본론****2.1. 용어와 용법**

한글개역개정판의 전염병은 히브리어 명사 ‘데베르’(*deber*)에 대한 번역이다.<sup>1)</sup> 이 단어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번역된 것은 아니고 역병(합 3:5) 또는 염병(레 26:25; 신 28:21, 돌림병(출 9:3, 15)으로 번역되었다.<sup>2)</sup> 이 단어들

은 같은 의미로서 변화를 주기 위한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이 전염병이 보통 질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질병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용례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마이어(Mayer)가 지적한 대로 “이 단어는 결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목록의 부분이나 적어도 병행법으로 나타난다(민 14:12; 합 3:5).”<sup>3)</sup> 그 목록은 주로 전염병이 기근과 전쟁과 함께 재앙이 세 가지(tripartite)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4)</sup> 이 관찰은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다(렘 27:13;겔 33:27; 28:8).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전염병이 기근이나 전쟁과 같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칠십인역(LXX)은 이 단어(데베르)를 대체로 일관성 있게 ‘죽

1) 히브리어사전(HALOT)은 이 단어가 ‘재앙’이나 ‘재난’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dibiru*와 관련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Ludwig Koehler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J. Brill, 1994 - 2000), 212. 그러나 이 관련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는 아카드어 정서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카드어 정서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모음 앞의 두 개의 개음절에 단모음이 나란히 올 때 둘째 모음은 사라진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카드어 단어는 *dibru*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 말이 수메르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A. L. Oppenheim et al.,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AD)* d (Chicago: Oriental Institute, 1959), 135. 아카드어에서 ‘전염병’에 해당하는 단어는 *mūtānu*이다. CAD, d, 134. *dibiru mūtānu ina māti ibbaššū*: 그 나라에 재난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재난과 전염병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명확한 예는 이 전조(omen)문이다: *mūtānu dannūtum ibbaššūma atum ana būt afjim ul irrub*: 극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CAD, m, 296.

2) 탈무드 타아닛(Ta'amit 3:5)에 역병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역병”的 의미는 무엇인가? 오백 명의 군사를 가진 성읍에서 사흘 연일 세 구의 주검이 나온다면, 자, 이것은 역병[이 임한 표시]이다. 만일 사망률이 이보다 낮다면 그것은 역병이 [임한 표시가] 아니다.” Jacob Neusner, *The Babylonian Talmud: A Translation and Commentary*, vol. 7a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11), 96.

3) Günter Mayer, “גָּרָר,”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 John T. Willis and W. Geoffrey. Bromile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126.  
4) 이런 목록은 고대근동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음’(*thanatos*)이라고 번역했다(출 5:3; 9:3, 15; 레 26:25 등).<sup>5)</sup> 또한 라틴어 불가타역도 마찬가지다(*mortem*). 이 번역은 전염병의 치명적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마이어가 지적한 이 목록의 사례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죄를 지어서 제시된 것은 세 가지이지만 선택한 사흘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창궐하여 칠만 명이 죽었다는 본문에는 다른 재앙이 병행해서 언급되지 않고 그 단어만 나타난다(삼하 24:15). 또한 민수기 본문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는 두 개의 재앙이 아니라 전염병의 결과가 백성이 멸망하거나(NIV)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NJPS).

이 외에도 ‘데베르’의 동의어로는 ‘재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막게파’(*maggēfā*)가 있다. 이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동사 ‘나가프’, (*nāgaf*, ‘치다’)에서 온 명사로서 전염병에 대한 표현에 변화를 주었다(민 17:13-15; 삼하 24:21, 25; 대상 21:17, 22; 속 14:12). 물론 종양(‘ōfel’)에 해당하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삼상 5:6-12)

## 2.2. 전염병의 종류

성경은 전염병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해당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을 알려주지만 그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질병이 감염되는 경로와 증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표현을 단서로 어느 정도는 질병의 종류를 추측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는 가축에 대한 돌림병이다. 그 가축은 말과 나귀와 소와 양에게 내려진 것이다(출 9:3). 이 가축의 질병을

5) 예외적으로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명사 ‘데베르’를 ‘다바르’로 이해하고 ‘로고스’(말씀)으로 번역했다. 다만 아퀼라역본은 문자적으로 λογίου (역병)이라고 바르게 번역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서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이나 우역(rinderpest)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질병이 전염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쉼쇼니(Shimshony)는 그 바이러스가 말이나 나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우역은 낙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이 질병이 곤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지구대열병(Rift Valley fever)이라고 한다. 이것이 1977년에 이집트에 대대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설득력을 얻는다.<sup>6)</sup>

전염병이 사람에게 내려진 경우는 블레셋에서 나타난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다. 그때 하나님은 아스돗과 그 주변 주민들을 전염병으로 치셨다. 이때 그 질병이 “독한 종기”(‘ōfēl)인데<sup>7)</sup> 그것은 단순히 염증으로 인한 종기가 아니고 도시 전체의 재난이 될 정도로 강한 전염성으로 소년과 노년을 가리지 않고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전염병이었다(삼상 5:6-12). 이 질병에 대해서 내과의사 출신 구약학자인 해리슨(Harrison)은 “놀랄 정도로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묘사는 증상으로 볼 때 쥐벼룩(pulex cheopis)의 해서 사람에게 전달되고 짧은 잡복기와 함께 비말에 의해서 전파되는 고대의 무서운 재앙인 선페스트(bubonic plague)의 진단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한다.<sup>8)</sup>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대로 다곤과 블레셋 거민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과 더불어 풍산의 신 다곤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앙으로 여겨진다.

6) A. Shimshony, Rift Valley Fever Caused the Fifth Plague of Egypt and That of 1977.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6 (1986) 1444.

7) 신명기에서는 이 단어를 치질로 번역했다(신 28:27). 그러나 이 번역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케티브’(전통적으로 전수받은 본문)의 ‘오팔림’(‘ořālīm)이 아니라 이문에 있는 ‘커레이’(전수받은 본문이 오기로 판단되어 의미가 통하는 말로 이문에 기록하여 수정해서 읽을 것을 권하는 본문)의 ‘터호림’(t̄’hōrīm)에 대한 번역이다. 히브리어 ‘ōfēl’에는 치질이란 의미가 없다.

8)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 714.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maggēfā) 즉 전염병의 증상을 예언하고 있다. 그것은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는 것이다(슥 14:12). 이 예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상처가 빠르게 곰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일종의 암과 같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 군사들은 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질병을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의 콜레라를 기억나게 한다는 학자도 있다.<sup>9)</sup> 그러나 그 섬뜩한 증상은 마치 핵폭탄이 터질 때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을 연상케 한다.<sup>10)</sup>

이렇게 본문이 전염병의 증상의 특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질병이 의학적으로 어떤 종류의 병인지 추측하기가 어렵다. 본문은 단지 그 질병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알려준다.

## 2.3. 전염병의 원인

### 2.3.1.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

인간의 죽음과 대부분의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특별히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으로 나타난다. 먼저 레위기 율법은 언약을 어긴 백성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경고한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전염병이 하나로 언급되었다. 즉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성읍으로 피해서 모여 있을 지라도 전염병을 퍼뜨리겠다고 하셨다(레 25:25).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9) Max Sussman, “Sickness and Disease,” ed. David Noel Freedman,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9.

10) Andrew E. Hill,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ed. David G. Firth, vol. 28,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Press, 2012), 267.

신명기 율법(2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이므로 저주를 빌하고 있다. 그 저주의 목록 가운데 전염병이 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신 28:21).<sup>11)</sup> 이 저주는 이미 악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그 땅에서도 제거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전염병과 관련된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다(렘 21:6-7; 24:10; 29:17-19; 34:17).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 심판이 임하여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준다(렘 44:13).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 가운데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사람이 삼분의 일이라고 그 비율까지 밝혀주었다(겔 5:12).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도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같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암 4:10). 또 전염병과 더불어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 전쟁과 전염병은 이스라엘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사람들은 역사의 진행 가운데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전염병과 같은 재앙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전쟁을 통해서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재앙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한다.

11) 이와 유사한 저주는 이후에 에살핫돈이 우라카자바누(Urakazabunu)의 통치자 라마타야(Ramataya)와 봉신조약을 체결할 때도 나타난다: “... 하늘과 땅의 위대한 신들이 너를 쳐서 ... 굶주림, 결핍, 기근과 역병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James Bennett Pritchard, ed., *The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AN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539.

### 2.3.2. 대적에 대한 심판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는 전염병이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겔 28:23). 시돈은 원래 페니키아의 주도적인 도시였지만(창 10:15; 신 3:9; 수 13:4, 6; 삿 3:3; 10:12).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는 시돈이 두로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때에 바벨론을 향한 반란에 가담한 역사가 될 것이다(렘 27:3).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운명 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질 것이다(렘 27:8). 시돈이 전염병과 피와 칼로 당하는 철저한 재난은 야웨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시돈 정복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궁중 기록부에 두로 왕과 가사 왕과 함께 ‘시돈 왕’이 언급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12)</sup>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겔 28:22).

하박국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도구 가운데 전염병이 언급되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합 3:5). 이 구절의 번역은 “전염병이 그 앞서 가고 역병이 그의 발에 앞서 간다”이다. ‘전염병’과 ‘역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와 ‘레셉’인데 그것들은 메소포타미아 고대전승에서 위대한 신의 수행원의 역할을 한다. 근동사람들은 질병을 마귀로 제시하고 레셉은 가나안 신의 이름이다. 이 전염병과 역병은 하나님의 현현에 수반되는 수행원같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났다.<sup>13)</sup> 이것은 이방나라와 그 신들에 대한

12) ANET, 308.

하나님의 논쟁(polemic)을 시사한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 앞에 모두 굴복 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그려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적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는 도구로 언급된 것은 그분의 언약적 심판의 정당성을 드러낸다. 또 이것은 하박국의 불평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다.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 2.3.3. 불분명한 재앙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그를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보호하신다고 하신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 91:3). 그런데 이 ‘치명적인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당하는 포괄적인 환난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구원하신다는 문맥에서 전염병이 언급된다. 여기에 언급된 환난과 재앙은 대적의 공격과 함께 전염병도 나타난다. 악인으로 표현된 대적은 의인을 공격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염병은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면 대적의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한다면 사냥꾼의 올무와 대적의 화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편 본문은 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91:12-13)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4. 전염병의 성격

### 2.4.1. 경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히브리인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야웨께서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다(출 5:3).<sup>14)</sup> ‘전염병과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 모두를 가리키지 않고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세는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로에게는 일종의 경고나 위협으로 들렸을 것이다. 정말 히브리인들이 그런 재앙을 당한다면 애굽의 노동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전염병을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준 경고로 사용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백성에게 위협으로 들리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민 14:12). 이 말씀은 정탐꾼의 보고로 인한 백성의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이 심판이 가혹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가장 큰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결정을 봐야 할 것이다(민 14:11).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자신의 구속역사를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속성에 의존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민 14:13-19). 결국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할 것이다.

13) G. del Olmo Lete, “Deber,” ed.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and Pieter W. van der Horst,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Leiden; Boston; Köln; Grand Rapids, MI; Cambridge: Brill; Eerdmans, 1999), 231 - 232.

14) 사르나의 주장과는 달리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인 모두를 가리키지 않고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구절에서 앞에 나타난 ‘우리’와 달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28.

## 2.4.2. 징계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구체적인 예는 광야에서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의 반란사건에서 나타난다. 고라의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민 16:41). “온 회중”은 그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 줄 알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구태여 ‘너희’('attem)라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두 사람에게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썼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중상적인 고발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며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다(민 16:22). 그래서 하나님은 반란자들만 벌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멸망당한 그 반란자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했다. 그들은 반란자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당한 참변에 대해서 감상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는 몰라도 모세와 아론은 지나치고, 그 참되고 신실한 지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민 16:3).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중을 만들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개역개정의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에서 “칠 때”라는 번역은 좀 애매하다. 마치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그들이 대적했을 때”로 번역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민 16:42),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회중을 멸하려고 하셨다(민 16:45). 모세와 아론이 다시 엎드려 간구하는 행위는 백성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지도자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때 모세와 아론의 간구는 소용이 없었다. 이미 재앙(neggev)이 시작되었다(민 16:46b, 개역개정은 ‘염병’이라고 번역했다). 이 재앙은 다음 몇 절에서 나타난 ‘막게파’(maggefā)로서 ‘염병’ 또는 ‘역병’으로 번역된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페스트와 같은 심한 점염병인 것 같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이용한 심판으로 ‘이 회중’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론의 중재로 인하여 14,700명을 제외한 온 회중의 목숨은 건졌다. 이 사건에 나타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정화하는 징계의 의미가 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또 다른 경우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본문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진다(삼하 24:1). 그러나 역대기 본문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다윗의 상태를 알려준다(대상 21:1). 이것은 다윗이 승승장구한 업적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마음에 가진 욕망과 악한 의도를 드러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sup>15)</sup> 사무엘서에도 다윗이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삼하 24:10, 17).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셨다(삼하 24:13).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내용은 가혹하기는 하지만 가차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심판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연민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물쩍하게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다. 다윗의 선택은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는 것이다(삼하 24:14). 하나님은 사흘 동안 7만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야웨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 재앙을 거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15) 신득일, 『101가지 구약 Q&A』(서울: CLC, 2015), 12-121.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슬퍼하셨기 때문이다(삼하 24:16).<sup>16)</sup>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이방신과는 다르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자비와 은혜가 더 많으신 분이다(출 34:6).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을 위한 지침을 주시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쳤다(삼하 24:25).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백성에게 내림으로써 그 공동체를 정화하셨다. 이 심판은 왕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2.5. 회복

구약의 율법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전염병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심판에서 회복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전염병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졌다면 논리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죄에서 돌아가는 회개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명기 율법은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적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범주에 넣어서 다루고 있다. 백성이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야웨께로 돌아키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신 30:10).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은 회개하고 야웨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신 30:16).

전염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에서 대할 수 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16) 여기서 개역개정의 ‘후회하다’는 가능한 번역이지만 문맥상 맞지 않다. Joyce G. Baldwin, *1 and 2 Samu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8,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317.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3-14). 이 구절은 역대기 본문에만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대하 6:26-31). 특별히 여기에 언급된 사항은 기근과 메뚜기 재앙과 점염병과 같은 백성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백성이 이런 종류의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면하게 하시는 데는 조건이 따른다. 그것은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표현은 앞에서 성전에 적용된 것과 같이(대하 6:33)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표현하는 것이다.<sup>17)</sup>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이다. 솔로몬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6:26),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6:29)이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조건은 행동이 따르는 진실한 회개와 겸손 그리고 기도와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얼굴을 찾다’란 표현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가진 자를 찾는다’는 것에 대한 관용구다(삼하 21:1; 대상 16:11; 시 24:6; 27:8; 105:4; 호 5:15).<sup>18)</sup>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이란 말은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시 105:3).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대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14b)고 하셨다.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여기서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은 단순히 땅과 관련된 농작물에 국한되지 않고, 그 땅에 사는 동물이나 가축은 물론 백성을 포함한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삶의 회복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sup>19)</sup> 질병과 관련된 실례는 히스기야가 자기를 깨끗하게

17) Labuschagne, “אַתָּה,” in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THAT)* II (Stuttgart: Kaiser, 1976), 671.

18) H. Simian-Jofre, “מְלֹא,” TDOT11, 598 - 599; A. S. van der Woude, “מְלֹא,” THAT II, 455. 아카드어로 ‘얼굴을 찾다’는 표현은 ‘도움을 청한다’는 관용구이다: eše i'paniki (내가 당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CAD Š II, 357.

19) Martin J. Selman, *2 Chronic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11, Tyndale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긴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낫게 하신 일이 될 것이다(대하 30:20). 아마도 규례를 어긴 자들은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중병에 걸렸을 것이다(레 26:14).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전염병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례는 아론의 중재로 인한 속죄의식에서 나타난다(민 16:41-50). 앞 단락에서 고라의 반란에 대한 심판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다고 반란을 일으킨 백성에 대한 심판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모세는 주도권을 쥐고 필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만일 이 재난이 자연적인 역병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생명도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하며 아론에게 명령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민 16:46).<sup>20)</sup> 이 명령의 초점은 백성을 속죄하는데 있다.<sup>21)</sup> 아론은 자신의 권위로써 책임을 지고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다. 그는 회중 속으로 달려가서 속죄하기 위하여 그 위험지역에 섰다. 이 속죄의 행위는 대제사장도 죽은 자들에게 노출되어 자신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일이었다(레 21:11). 그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속죄를 해야 했다(민 16:48). 아론의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의 사역의 효력도 주님의 속죄에 근거한 것이다.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356.  
20) 향으로 죄를 속하는 것은

21) ‘속죄하다’는 히브리어 *kājār*인데 이 동사는 ‘칼’형일 때는 ‘덮다’, ‘칠하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페엘’형일 경우에는 ‘속죄하다’, ‘경감시키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용법은 그전의 동종어 아카드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G. *kapārum*; D, *kuppurum*). Cf. Shin, *The Ark of Yahweh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2), 16-17.

아론은 회막문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을 위해서 중재했다. 속죄는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레 4) 여기서는 향로의 향을 피우면서 동물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속죄의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레 16:12-13).<sup>22)</sup> 아론은 염병이 그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더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속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인된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아론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백성과의 화해를 허락하셨다. 이미 만 사천칠백 명이 죽었지만 아론의 속죄로 인하여 전염병은 사라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를 완전히 놓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이 베푸신 속죄를 기억해야 했다. 이 본문에는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지만 회개 없는 속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복의 길도 회개를 통한 속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결론

한글로 전염병, 염병, 돌림병으로 번역된 ‘데베르’는 구약에 나타난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은 언약적 심판으로 사용된다. 언약적 심판이란 것은 그 백성에게는 가혹한 것이지만 가치없는 파멸은 아니고 백성에 대한 경고나 징계로서

22) 그렇지만 ‘속죄’란 말이 ‘덮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노르뜨제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 향로의 연기가 백성을 덮어서 가려서 죄를 속죄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언어적으로도 맞지 않다. A. Noordzij, *Het boek Numeri, Korte Verklaring* (Kampen: Kok, 1941), 187. 그렇다고 재단의 불을 강조하면서 그 불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서 사용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전염병을 통한 백성에 대한 심판은 옛 언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한 해결책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섬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이 인간의 실수나 자연발생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염병이 개인이나 사회의 심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사용하신 구약의 사례를 새 언약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확산되는 전염병이 성도에게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인류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도는 전염병 확산의 위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신을 살피며,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사 53:4)를 더욱 의지함으로써, 그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공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 특집 2

### 나라 사랑: 『21세기 찬송가』의 교독문 99-103을 중심으로

Christian Patriotism at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focused on Versicle 99-103 in 『The 21st Century Christian Hymnal』

송영목 · 정미경

고신대(신학과 교수) · 고신대(강사)

#### 목 차

1. 들어가면서 | 29
2. 『21세기 찬송가』의 교독문의 간략한 개관 | 31
3. 나라사랑 교독문 5개 분석 | 33
  - 3.1. 교독문 99. 나라 사랑(1) | 33
  - 3.2. 교독문 100. 나라 사랑(2) | 35
  - 3.3. 교독문 101. 나라 사랑(3) | 37
  - 3.4. 교독문 102. 나라 사랑(4) | 41
  - 3.5. 교독문 103. 나라 사랑(5) | 46
  - 3.6. 요약 | 47
4. 나라 사랑 교독문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해설 | 49
5. 나라 사랑 교독문에 근거한 찬송가와 해설 | 53
  - 5.1. 교독문에 근거한 찬송가 | 53
  - 5.2. 찬송가 해설 | 54
6. 나오면서 | 56